

주요 동향 & 뉴스 리스트

2020년 1월 2호

◆ 번역(요약) 기사

1. 2019년 중국 세관의 건화물 관련 주요 정책 회고
干货 2019全年海关重点政策梳理
2. 상하이항그룹, 37억 위안 규모의 Ningbo-저우산항 지분 인수 계획
上港集团拟37亿元认购宁波舟山港股份, 两大港口实现交叉持股
3. 상하이 통상구의 통관시간 2017년 대비 대폭 감소
口岸整体通关时间压缩过半
4. 2019년 중국 주요 항만 물동량, 상하이항 컨테이너물동량 4,331만 TEU
2019全国港口吞吐量成绩单, 你的港口排在第几名?

◆ 기타 동향

5. 엔타이(烟台)항 통상구 국가 검수 통과, 임시 대외개방 항만에서 정식 대외개방으로
烟台港口岸通过国家验收 正式扩大对外开放
<http://www.port.org.cn/info/2020/204630.htm>
6. 광저우항 올해 말에 중국 최대의 항만 배후단지 냉장·냉동창고 완공
广州南沙今年底将建成中国内地最大临港冷库
<http://www.port.org.cn/info/2020/204633.htm>
7. 지린성 '프리모리에 2호' 루트 안정적인 추진, 러시아 극동항만을 통해 바다로
吉林稳步推进“滨海2号”建设 借助俄港口通江达海
<http://www.port.org.cn/info/2020/204640.htm>
8. 저장성, 각 부분간 '창장삼각주 일체화' 추진을 통해 세계급 항만군 구축에 협력
浙江部署推进长三角一体化 协力打造世界级港口群
<http://www.port.org.cn/info/2020/204641.htm>
9. 안후이성, '창장삼각주 일체화' 추진으로 세계급 공항 및 항만군 건설 참여
<http://www.port.org.cn/info/2020/204652.htm>
10. 다롄항, 자동화 컨테이너야드 정식 운행
大连港集装箱堆场自动化正式运行
https://mp.weixin.qq.com/s/ZNMoaIsLP_BnjAKYX3pzAQ

감수자 : 한광석 중국연구센터 센터장
김세원 중국연구센터 전문연구원

(kmishanghai@naver.com/+86-21-6090-0395)

2019년 중국 세관의 건화물 관련 주요 정책 회고

- 2019년 1월, 「통관기관 등록신고증명서」(수출입화물 송수하인) ‘서류단일화’ 개편 포함 공고
 - 과거 신고인이 공상신고·등록 시, 「통관기관 등록신고증명서」(수출입화물 송수하인)를 동시에 처리해야 했는데, 이와 관련해서 수출입화물 송수하인의 등록신고 항목에 체크하고 관련 등록 정보를 보충 기록할 수 있게 됨
 - 시장감독관리부문은 ‘서류 단일화’에 따라 등록과정을 완료하게 되며, 세관은 기업의 공상신고정보와 상무등록정보를 신청받은 후 바로 기업등록을 마치고, 기업은 세관에 제차 방문하여 등록·신고수속을 할 의무가 없어짐
 - 본 공고가 실시된 후 세관은 더이상 「통관기관 등록신고증명서」(수출입화물 송수하인)를 심사 발급하지 않게 됨
- 2019년 1월, 「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통관서류 제도정비」수정에 대한 공고
 -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의 기업은 세관에 수출입 및 구역 진·출입 시 「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경(境) 화물등록리스트」를 작성해야 하고,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과 경내(역외)간의 화물 진출입 시 역외기업은 「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 화물통관리스트」를 작성해야 함
 - 보세화물 절차는 규정대로 진행하며, 「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경(境) 화물등록리스트」는 「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 화물통관리스트」와 비교·대조하여 작성함
- 2019년 2월, 종합보세구 동식물 제품 검역 실행 ‘선 진입, 후 검역’의 감독관리 모델
 - 종합보세구 진입의 동식물 제품에 대한 검역은 ‘선 진입, 후 검역’ 모델에 따라 실행하며, 검역항목은 동식물 제품에 관련되는 농약잔류, 환경오염물, 생물독소, 중금속 등 안전위생항목을 포함함
- 2019년 3월, 원산지 증명서 인쇄 개혁 시행지에 대한 공고
 - 2019년 3월 25일부터 베이징, 텐진, 상하이, 장쑤성, 광둥성, 충칭 등 성(혹은 시)을 원산지 증명서 자체 인쇄 개혁 시행지로 선정함
 - 원산지증명 신청인 혹은 대리인은 국제무역 ‘단일창구’ 혹은 ‘인터넷+세관’ 일체화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세관 비준통과의 원산지 증명서를 자체 출력할 수 있고, 증명서 종류별로 과일을 출력할 수 있음
 - 신고인은 출력 전 국제무역 ‘단일창구’ 혹은 ‘인터넷+세관’ 일체화 네트워크 플랫폼에 원산지증명서 기업 성명란에 필요한 전자인감과 신고인 전자서명을 전송해야 함
- 2019년 3월, 수출가공 전자장부 시행에 관한 공고
 - 2019년 4월 1일부터 세관은 정식으로 수출가공 전자장부를 시행하고, 기업은 국제무역 ‘단일창구’를 통해 수출가공 장부처리 등 각종 항목 절차를 밟을 수 있음
 - 수출가공장부를 사용하는 기업이 장부 항목의 화물 수출입처리 시 기업은 실제 업무 필요에 따

라 수출입 통상구를 선택할 수 있음

- 2019년 3월, 와이까오차오 항만구역에서의 수출 ‘사전신고, 운송통과’ 통관모델 시행에 관한 공고
 - 와이까오차오 항만구역 수출의 현지 통관화물에 대해, 기업 신용등급이 높은 수출화물 송하인은 자체적으로 ‘사전신고, 운송통과’ 모델을 선택해서 수출 통관수속을 할 수 있음
 - 수출화물송하인, 위탁의 통관기업이 화물이 구비되고 컨테이너 화물의 준비를 마친 후 적하목록 전자데이터를 취득하면 세관감독관리 작업장소에 화물 이동 3일 전까지 세관에 신고수속을 할 수 있게 됨. 화물이 세관감독관리 작업장소에 도착하면 세관은 화물검사와 반출 수속을 함

- 2019년 4월, 중국-일본 세관 AEO 상호인증실시에 대한 공고
 - 중일 양측은 상대측 세관의 ‘인증통과의 경영자’ (약칭 ‘AEO 기업’) 상호인증약정을 체결하여 상대 AEO 기업의 수입화물에 통관편의를 제공하게 됨
 - 그중 일본 세관은 중국 세관의 고등인증기업을 중국의 AEO 기업으로 인증했으며, 중국 세관은 일본 세관의 ‘인증통과의 경영자’를 일본의 AEO 기업으로 인증함

- 2019년 5월, 세관 신고리스트 제출, 외화결제증명문건, 세관등록말소문건의 철회에 대한 공고
 - 세관 신고리스트, 외화결제증명문건과 가공무역 심사처리의 세관등록말소문건을 전면 철회함
 - 기업이 화물무역 외화결제와 가공무역 심사업무를 처리하고, 규정에 따라 서류화된 세관 신고리스트를 제출해야 했던 것을 중국 전자통상구를 통해 일반 A4지에 세관신고리스트를 출력하고 기업이 날인하게 됨

- 2019년 8월, 종합보세구 증치세(부가가치세) 일반납세자 자격시행에 대한 공고
 - 일반납세자 자격을 등록관리제로 시행하며,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시행기업에 부가가치세 일반납부인 자격부여를 포함함
 - 시행기업은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밖에서 화물을 구매하여 들여올 때 부가가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취득할 수 있고, 이를 부가가치세 항목에 부합하는 세액의 인하 증빙 혹은 수출세 환급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음

- 2019년 10월, 수입자동차 부품에 대한 증빙서류 편리화조치 실행
 - 세관은 CCC 인증에 관련되는 부분 수입자동차 부품의 세관 검역 시 증빙서류 인증인가부문이 인증한 기관의 인증서를 취득하면 원칙상 샘플 추출검사를 실시하지 않음
 - 위험이나 안전문제에 직결되는 경우 샘플 추출검사를 실시하고 세관의 실제안전통제지령에 따라 집행함

- 2019년 10월, 종합보세구 내 보세화물리스와 선물보세교역업무 전개에 대한 공고
 - 종합보세구 리스와 선물보세교역업무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, 보세화물리스와 선물보세교역업무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함

- 2019년 10월, 단계적 허가 실시로 통상구 세관 반출 가속화에 대한 통지
 - 규정화된 수입화물에 대해 세관 통지에 의거하여 수입지역 세관검사관리구에서의 화물 반출을 허가하며, 수입화물 반출허가 후 기업 자체운송과 보관부터 세관 반출통지에 따라 판매와 사용을 허가함

- 2019년 10월, 상하이세관, 와이까오차오 항만구역에서 수출 ‘사전신고, 운송통과’ 통관모델 시행에 관한 공고
 - 2019년 10월 8일부터 와이까오차오 항만구역 수출의 현지 통관화물과 기업 신용등급이 보통등급 이상의 수출화물 송하인에 대해, 자율적으로 ‘사전신고, 운송통과’ 모델로 수출통관수속이 가능하게 됨

- 2019년 11월, 수출입 수운과 항공화물 적하목록 전자화에 대한 공고
 - 수출입 수운과 항공화물 적하목록 전자화로의 변경은 다음의 서류 양식을 포함함 : ‘최초(원시)적하목록’, ‘예비적하목록’, ‘적재적하목록’, ‘검수보고’, ‘운송보고’, ‘수출적재누락신청’, ‘배분신청’, ‘분류신청’ 등

- 2019년 11월, 수입상품샘플 우선 분류 자문서비스에 대한 공고
 - 수출입기업의 수입상품샘플분류 사전 이해에 대한 수요에 따라 세관은 수입상품샘플 사전분류 자문서비스에 대해 관련 공고를 발표했으며, 사전분류자문서비스 신청인, 신청범위, 신청경로, 세관답변기한, 사전분류법률효력 등의 사항을 명확히 함

- 2019년 11월, 최혜무역협정 항목의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(장소) 반출반입 화물의 통관신청 조정에 대한 공고
 - 세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구역(장소)에서 반출되어 국내판매시에 대해 협정세율 혹은 최혜세율의 수입화물을 적용하고, 「중국-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」과 「중국-오스트레일리아 자유무역협정」항목하의 특수보장조치를 실시하는 농산품을 제외한 화물이 경(境)외에서 구역(장소)으로 반입시 수하인 혹은 대리인은 「중화인민공화국 세관수출입화물 통관서류제도정비」중 관련 최혜무역협정 항목의 수입화물 수입통관서류 혹은 입경(境)등록리스트를 작성해야한다고 발표함

- 2019년 12월, 국제무역 ‘단일창구’를 통한 주요 통관업무 일괄처리 대한 공고
 - 2019년 12월 16일부터 수출입 화물통관신청, 적하목록 통관신청과 운송수단 통관신청업무는 국제무역 ‘단일창구’를 통해 일괄 처리하고, 기타 통관신청 경로는 응급보장으로만 사용함

- 2019년 12월, 통관기업과 통관기업 지사의 등록신고 유효기간 취소에 대한 공고
 - 세관은 전국적으로 통관기업과 통관기업 지사의 등록신고 유효기간을 취소함

- 2019년 12월, 업무수속 재정비를 통한 가공무역 편리화 촉진에 대한 공고
 - 세관은 부분 가공무역업무에 대해 여러 절차의 재정비를 결정함

- 2019년 12월, 「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」검사대조 취소에 대한 공고
 - 「외국기업 투자법」 및 「외국기업 투자법 실시조례」의 실시를 공고히 하기 위해, 상무주관부분은 2020년 1월 1일부터 「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」의 검사대조를 취소함
 - 외국투자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이 수출입 익스프레스 화물대리통관업무 신청 및 외국투자 수출입화물 수하인 송하인이 세관에 수속 시, 세관은 더 이상 「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」를 검사대조하지 않음

- 2019년 12월, ‘투스텝 신고’ 개혁 전면실시에 대한 공고
 - 국무원의 ‘광관부(행정 간소화)’ 개혁을 관철하고, 비즈니스환경을 한층 더 개선하고, 무역 편리화를 촉진하기 위해, 세관은 수입화물의 ‘투스텝 신고’ 개혁 시행의 전면 확대를 결정함

(출처: 外联发商务咨询, 2020.01.15)

<https://mp.weixin.qq.com/s/PcDMI8S2fdtdyocB5pkvGQ>

상하이항그룹, 37억 위안 규모의 Ningbo·저우산항 지분 인수 계획

- 2020년 1월 21일, Ningbo·저우산항주식유한공사는 주주인 Ningbo·저우산항그룹, 상하이항그룹에게 비공개 주식 26.35억 주 미만을 발행할 계획(유상증자)이라고 발표함
- 동 계획에 따른 자금 조달 규모는 112.15억 위안에 달하며, 상하이항그룹은 37억 위안 미만 규모의 지분을 인수하게 됨
- Ningbo·저우산항은 이번 유상증자의 목적은 (1) 창장삼각주지역의 운영 역량 강화를 통해 시장에서 지위 확보, (2) 상하이항그룹과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창장삼각주지역 항만 자원 통합을 촉진 및 항만그룹의 협력발전 실현, (3) 자산 부채구조 개선 및 채무 경감이라고 설명함
- 두 항만의 지분협력은 이미 2년 전부터 예상된 계획임
- 2018년 소양산도지역(현재 양산항 소재지역)의 종합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, 저장해양항만그룹(浙江海港集团)은 현금 50억 위안을 상하이항그룹의 전액출자 자회사인 상하이성동국제컨테이너터미널(上海盛东国际集装箱码头有限公司)에 증자하였고, 증자 후, 상하이항그룹과 저장해양항만그룹의 성동터미널 지분 비율은 80:20이 되었음
- 두 거대 항만의 지분 협력은 먼저 창장삼각주지역 항만간의 일체화 협동발전을 강화하며, 상하이의 ‘국제화된 해운중심’ 기능을 촉진할 것임
- 또한, 두 항만의 규모의 경제 역량을 확대하고, 과거의 경쟁 구도를 개선하여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

(출처 : 港口圈, 2020. 1. 22.)

<https://mp.weixin.qq.com/s/kugOW50xrA2f1I4auldf9g>

상하이 통상구의 통관시간 2017년 대비 대폭 감소

- 2018년 중국 국무원이 「통상구(口岸) 비즈니스환경 최적화를 통한 국제무역편리화 업무방안」을 발표한 이후, 중국의 통관시간은 2017년 대비 크게 단축됨
 - 2019년 12월 기준, 중국의 수입 전체 통관시간(평균)은 36.7시간으로 2017년 대비 62.3% 단축되었으며, 수출 전체 통관시간(평균)은 2.6시간으로 2017년 대비 78.6%가 단축됨
- 수출입기업들의 신고 항목도 대폭 간소화되었으며, 신고 항목은 기존 229항에서 105항으로 줄어들었으며, 중국은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119항의 기계·전자제품 자동수입허가증(自动进口许可证, Automatic Import License)을 취소했음
 - 세관에서는 ‘사전신고’ 통관모델을 보급·적용했으며, 관세 보증보험 개혁을 심화 추진함. 카자흐스탄, 몽골, 베트남과 농부산품의 ‘녹색통로’ 개통을 통해 신속하 통관을 실현했으며, AEO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이미 42개 국가와 상호인증체계를 구축함
- 상하이 각 통상구의 행정서류 전자화 수준 크게 제고됨
 - 2019년 상하이항은 기기인수도증(E/R) 전자화를 실현하여 지난 30년간 종이서류에 의한 유통을 종식했으며, 이를 통해 절감된 기업의 직접비용만 2.4억 위안이며 전체 물류 단계에서 절감된 간접적 비용은 약 4억 위안으로 추정됨
 - 또한, 상하이푸동공항의 경우 전자운송장 사용량은 세계공항 중 1위를 기록함

(출처 : 中国上海自贸试验区, 2020. 1. 19.)

<https://mp.weixin.qq.com/s/L34vSDceWxHVFUEffJLoMA>

2019년 중국 주요 항만 물동량, 상하이항 컨테이너물동량 4,331만 TEU

- 중국 교통운수부의 발표에 따르면, 2019년 중국 항만의 전체 화물물동량은 139억 5,083만 톤으로 전년대비 8.8% 증가했으며, 그중에서 대외무역 물동량은 43억 2,069만 톤으로 4.8% 증가함
- 전체 화물물동량 기준으로 Ningbo · Zhoushan항이 전년대비 7.9% 증가한 11억 2,009만 톤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, 그 다음으로 상하이항 7억 1,877만 톤, Tangshan항 6억 5,674만 톤 등의 순임. 전체 화물물동량에서 1~7위의 순위는 전년과 동일했으며, Dalian항이 전년도 8위에서 10위로 밀려남
- 2019년 중국의 컨테이너물동량은 2억 6,107만 TEU로 전년대비 4.4% 증가함
- 컨테이너물동량은 상하이항이 전년대비 3.1% 증가한 4,331만 TEU로 1위를 기록했으며, 그 다음으로 Ningbo · Zhoushan항 2,753만 TEU, 선전항 2,577만 TEU 등의 순임. 컨테이너물동량에서 1~8위의 순위는 전년과 변동없으며, 다만 Zhoushan항과 Yingkou항이 각각 9위와 10위의 자리를 서로 바꿈
- Dalian항과 Yingkou항의 컨테이너물동량은 전년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여 중국 동북지역 항만의 성장 둔화를 나타냄
- 2019년 컨테이너물동량 1~10위의 항만은 아래 <표>와 같음

< 2019년 중국 항만 컨테이너물동량 순위 >

NO.	항만	컨테이너물동량(만 TEU)	전년대비 증가율(%)
1	상하이항	4,331	3.1
2	Ningbo · Zhoushan항	2,753	4.5
3	선전항	2,577	0.1
4	광저우항	2,283	5.7
5	칭다오항	2,101	8.8
6	톈진항	1,730	8.1
7	샤먼항	1,112	3.9
8	Dalian항	876	-10.3
9	Zhoushan항(내항)	627	-1.4
10	잉커우항	548	-15.6

(출처 : 港口圈, 2020. 1. 21.)

<https://mp.weixin.qq.com/s/EYGmKkiacLJk8jd5ocNdA>